

본교 워킹 그룹 2년 연속 교육부 최우수대학 선정

반도체 설계교육센터 워킹 그룹(이하 W/G)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카이스트 중앙 반도체 설계교육센터가 주관하는 W/G 교육부문에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본교는 통상산업부와 삼성전자, LG반도체, 현대전자산업 등 반도체 3사의 도움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 설계교육센터의 한 관계자는 "학교의 지원 확대와 교수들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에 힘입어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불교문화대학원생 13명 일산병원기금 4천만원 기부

천불정사 주지 고담스님을 비롯한 경주 불교문화대학원 13명이 4천849만원을 일산병원 건립기금으로 기부했다.

이외에도 신규기부 및 약정이 지난 한 주 70건을 넘어섰으며, 기부금액은 약 1억 800여만원이다. 현재 발전기금 총액은 약정액을 합쳐 522억 2천2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 체험활동 신청 오는 21일부터 4일간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취업지원팀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이하 중활) 신청을 받는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주최로 열리는 이번 중활은 학생들이 중소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취업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중활에 1개월 이상 참여한 학생은 중활확인서 발급 등 우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교양교육분야 평가 내일(20일) 본교 방문심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기준·서울대 총장, 이하 대교협) 교양교육분야 현지방문 평가단이 내일 본교를 방문한다.

전문대를 포함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대교협 평가는 지난 9월 각 대학이 교양교육운영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내년초에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총학 '갑후보' 주진완·양희창조 당선

지지율 62.95% 4천8표 얻어 ... 경주캠, 오는 27일 투표

제34대 정·부학생회장 선거 결과 갑후보 주진완(국교3)·양희창(반도체3)이 당선됐다.

지난 13일부터 3일간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 투표결과 총 유권자 1만2천223명중 6천367명이 참여해 52.09%의 투표율을 보였다.

주진완·양희창조는 4천8명의 표를 받아 62.95%의 지지율을, 이재광(철4)·이동우(전기4) 조는 2천186표인 34.33%의 지지율을 얻었다.

주진완·양희창조는 "지지해준 학생들과 선거운동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학생들을 만나면서 약속했던 공약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16대 총학생회에 단독 입후보한 허고은(중문2)·박운진(연영3)조는 총 유

권자 5천310명 중 3천95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천896명이 찬성하고 173명이 반대해 93.57%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투표 둘째날까지 투표율이 저조했으나 마지막 날인 16일 15%이상 투표율을 보여 무산위기를 넘겼다.

또한 문과대에서 이재광·이동우조가 70.30%의 지지율을, 사범대에서 주진완·양희창조가 86.13%의 지지율을 얻어 각 선거본부 정후보가 학생회장을 역임한 단과대에서 특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관련기사 2면(학내보도) 경주캠퍼스 제18대 총학생회 선거는 △기호1= '정직한 미래를 설계하는 통 큰 사람들'을 모토로 한 박준민(회계3)·이성락(사

체3)조와 △기호2= '차지의 장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토로 한 윤성울(철3)·박강식(경영3)조가 입후보했다.

양 조는 지난 15일 백상탑 앞에서 1차 합동선거운동발표회를 가졌으며 오는 20일과 22일, 두 차례의 합동유세를 추가로 가질 예정이다.

투표일은 오는 27일이며 투표 장소는 교내 각 건물 수위실 앞이다. 주간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8대 총학생회 선거는 △기호1= '여자! 그 이상의 행복을 꿈꾸는 소꿉친구'를 모토로 한 노태경(조경3)·김유진(경제3)조와 △기호2= '아픈 곳



지난 17일 새벽 본관 중앙당에서 개표를 진행했다.

에 손이 간다. 서로의 상처에 손을 내미는 우리는 강하다. 여성 연대의 힘! 18대 Fenergy 총학생회'를 모토로 한 김효선(회계3)·박지혜(철3)조가 입후보했다.

지난 14일부터 선거 유세를 시작했으며 선거일은 이번 주 내에

투표일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합동 유세는 오늘(19일) 오후 1시 백상탑 앞에서 열리며 오는 21, 22 양일간 각각 공개 좌담회와 야간 유세가 실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경주보도) 대학부 dmz@donggu.ac.kr

유명무실한 졸업논문제도

'관례' 아닌 4년의 '결실' 돼야 일부 단과대 시행방법 변경 등 대안 모색

졸업논문 마감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4학년 졸업예정자들은 취업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졸업논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형식적인 통과리테처럼 '유명무실'해졌다. IMF 체제 이후 점점 좁아지는 취업문 때문에 4학년들은 졸업을 앞두고 논문을 준비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원칙상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해 주제를 정하고 논문을 작성해야 하지만, 조교의 확인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출만 하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법과대 4학년 손모군의 말처럼 논문 심사는 형식적으로 변했다.

사정이 이런 만큼 연구를 통한 독창적인 논문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마감일이 임박해 이전에 쓰여진 리포트를 재편집하거나, 기존 논문을이나 자료들을 '짜깁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지도교수 역시 취업 준비에 바쁜 학생들의 사정을 감안해 용인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과대 4학년 홍도군은 "취업 때문에 졸업 논문에 소홀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과들은 졸업논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졸업논문 형식으로 문제제출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조사 보고 △실기시험 △졸업종합시험이 가능하다.

전기공학과와 수학과 등 일부 학과는 논문 대신 종합시험으로 대체하고 있고, 지리교육과와 화학공학과 등은 논문 발표회를 열어 학생들이 논문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요건으로 졸업논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학과도 있다.

기계공학과는 지난 99년부터

터 교수·학생간 졸업논문 시행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종합시험 △자격증 △토익점수 △경력평과 중 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졸업자격을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방세운(기계공학) 교수는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요건들이 포함돼 학생들도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취업을 위한 졸업논문 형식개선은 현실적이지만 취업에 유리하다고 해서 토익 고득점이 졸업논문을 대체한다면 더 이상 대학교육의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졸업논문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배운 것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다'는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교수·학생이 직접 학과별 특성에 맞는 방법적인 대안모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ac.kr

이벤트 전문가 과정 개설 조지워싱턴대 프로그램 제공 받아

경영대학원(원장=김태홍·국제통상학)은 지난 14일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스페셜 이벤트 협회 인준의 이벤트·컨벤션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로 했다.

강의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준범, 조창욱 관광경영학 교수가 서울캠퍼스에서 15주 동안 진행하며, 전 과정을 수강한 학생에게는 국제스페셜 이벤트 협회의 공식인준 자격증이 수여된다.

50명 정원으로 하는 이번 프

로그램에서는 토폴, 토익, 텡스 성적 우수자는 입학전형시 우대된다. 접수는 재학생을 포함한 일반인도 가능하며 다음달 10일부터 11일간 경영대학원 교학부에서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영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몇몇 대학에서 비슷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 것은 본교가 처음이다"며 "본교를 일반인에게 보다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참가 오는 23일부터 4일간 코엑스 태평양관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생선발실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에 참가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전국 77개 대학이 참가하며, 본교는 교직원 5명과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도우미 5명이 참가해 학생들에게 입시요강과 전공을 소

개하는 등 학교 홍보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선발실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고등학교를 방문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동대부고를 비롯한 6개 고등학교에서 열리며, 수험생들에게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홍보를 하게된다.

지면안내

▶ 민심기행 4면



▶ 원도우 XP와 카오스 이론 5면

▶ 노동문화 영역을 확대하다 7면

보리소

불상이 우상?

최 승 천 (참여불교재가연대)

불자가 아닌 분들과 불교이야기를 하다 자주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는 '우상의 종교'가 아니냐는 점이다. 불자들이 불상이나 불화에 경배드리는 것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가 한 국가의 상징물이듯이 불상이나 탱화는 붓다와 그 가르침의 세계를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국가 앞에서 경례를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표현하는 일이다.

불상과 불화에 대한 경배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붓다가 깨달음의 가르침을 드러내 보여준 것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다. 또한 경배하는 당사자에게는 붓다와 같이 되고자 하는 다짐의 행위이기도 하다.

붓다의 열반 뒤 제자들은 큰 가르침을 준 분의 모습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 궁금증을 경전을 토대로 해 재현한 것이 불상과 불화이다. 그 모습은 결코 획일적이지 않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거기에는 그 지역과 시대의 민중들의 정서가, 그리고 제작자(불교)의 신상적인 고뇌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절대신앙의 종교'가 아닌 '마음의 종교'라고 한다. 그리고 차별 없이 누구나 보살행과 참회 정진을 통해 붓다와 같은 깨달음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불상에 대해 절을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나의 마음에 절을 하는 것이다.

지난 9월 28일 원주경찰서 경승실에서 개최 하려던 불상불안법회가 지역 특정종교계의 불상불안 반대로 잠정 보류됐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핵심은 불상이 '우상'이라는 데로 모아진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치고 발전하는 나라가 없다"며 불상 설치를 비난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불교는 우상의 종교'라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같은 교계 안의 뜻 있는 인사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보낸 지 이미 오래다.

발전기금 ARS 7000-119

동대신문 기획광고

혹시 당신도 ?

인터넷 게시판
비실명 공간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당신의 글은 당신의 인격입니다.

동대신문사

야간강좌 · 7개 단과대 학생회 건설

야총 갑 후보 이상현 · 장혜정 조 당선

2001학년도 야간강좌와 단과대 학생회 선거결과 제18대 야간강좌 총학생회와 7개 단과대 학생회가 세워졌다.

야총 경선으로 진행된 야간강좌 총학생회 선거는 갑 후보인 이상현(경영2) · 장혜정(경영4) 조가 을 후보인 김영규(경제2) · 고지아(국제통상2) 조에 60표 앞서 당선됐다.

야간강좌는 총 유권자 1천972명 중 986명이 투표해 50.00%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갑 후보가 513표를 얻어 52.02%의 지지율로 야간강좌 총학생회를 이끌게 됐다.

불교대 정미희(인도철3) · 김영철(불교3) 조가 64.51%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72.50%, 반대 18.12%로 불교대 정 · 부학생회장에 당선.

문과대 최경희(국문2) 후보가 54.59%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2.04%, 반대 6.70%로 문과대 학생회장에 당선.

사과대 서영건(사회2) 후보가 54.01%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1.62%, 반대 5.68%로 사과대 학생회장에 당선.

경영대 유영빈(경영4) · 김복중(경영3) 조가 59.8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0.86%, 반대 5.39%로 경영대 정 · 부학생회장에 당선.

생자대 신용화(생명자원산업유

단과대	투표인원	투표율	찬성	반대
불교대	160	64.51%	116(72.50%)	29(18.12%)
문과대	641	54.59%	590(92.04%)	43(6.70%)
사과대	633	54.01%	580(91.62%)	36(5.68%)
경영대	686	59.86%	623(90.81%)	37(5.39%)
생자대	413	76.19%	387(93.70%)	18(4.35%)
사범대	821	78.56%	783(95.37%)	33(4.01%)
예술대	376	77.52%	345(91.75%)	23(6.11%)

통2) · 차현석(산림자원2) 조가 76.19%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3.70%, 반대 4.35%로 생자대 정 · 부학생회장에 당선.

사범대 오선임(국교3) · 신승원(수교3) 조가 78.5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5.37%,

반대 4.01%로 사범대 정 · 부학생회장에 당선.

예술대 이승민(서양화3) · 김상선(영화영상2) 조가 77.52%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1.75%, 반대 6.11%로 예술대 정 · 부학생회장에 당선.

제34대 총학생회 당선자를 만나

“두달 앞선 총학건설로 관성 탈피”



사진/김정성 기자

총학생회 선거 결과 갑후보인 ‘동고동락’ 주진완 · 양희창 조가 60% 이상 학생들의 지지를 얻어 제34대 총학생회 정 · 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이들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지난 33대 총학생회를 평가하면서 관성화된 운영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 학생회 사업 관성화는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닌 준비 부족이 문제였다고 본다. 매번 사업을 처리하기에 바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내년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과학생회와 긴밀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많이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 달 앞선 총학생회’를 목표로 모든 사업을 미리 준비할 계획이다.

- 일선병원 조기개원 반대 운동은 어떻게 전개할 계획인가.

= 이번 선거운동기간을 통해 일선병원문제를 공론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일선병원문제의 해결은 등록금 등 학내 모든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학내 주체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 · 직원 ·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내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학발전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다.

- 내년 사업에 학생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 참여유도는 단시일 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주일마다 발간할 ‘해우소’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고 이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내세웠던 ‘일만 이천과 동고동락’이라는 모토처럼 공약이행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항상 함께 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정성 기자
telme@dongguk.edu

전과신청 오늘(19일)부터 학과별 정원 50%까지 선발

2002학년도 전과신청이 오늘부터 23일까지 변경을 희망하는 전공의 소속 단과대 교학과에서 실시된다. 평점평균 2.5 이상인 2학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이번 전공 · 학과변경은 학과별로 지난해 입학정원의 50%까지 허용하며, 사범대는 정원의 20%만 신청받는다. 2002년 1학기 3학년 복학예정자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전과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학과의 면접 · 실기고사는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다. 한편,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9일이다.

시험답안 작성방법 강의 ‘나도 장학생이 될 수 있다’

학생상담센터(실장=고진호 · 교육학)는 오는 27일 오후 3시 학립관에서 시험답안 작성방법 강의를 연다. ‘나도 장학생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강의는 대학원 박사 및 석사과정의 강사를 초빙해 △어문계열 △이공계열 △경상계열 △인문 · 사회계열별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학생상담센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기말고사 뿐 아니라 학점관리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구나” ... 제10회 Process전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화학공학과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한 화공과 학생이 신화 · 환원을 이용한 폐수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동연, 4/4분기 전동대회 개최

동아리 감사 · 보궐선거 등 논의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권영은 · 국문3, 이하 동연)는 오는 21일 4/4분기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이하 전동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동대회는 △열린 동연제와 하반기 동아리 사업 평가 △하반기 동아리 감사 △동아리 추가 지원금 분배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며, 한해 동안 동연이 처리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남은 일정들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금은 활발한 활동을 벌인 동아리를 중심으로 분배된다. 또한 후보자 미등록으로 연기된 18대 동연 정부회장 선거에 대한 보고와 함께 보궐선거 시행 여부도 논의된다.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선발대상=2001년 현재 교직과정이 승인돼 있는 학과(전공)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
 △신청기간=2001년 11월 19일(월)~23일(금)
 △접수처=소속학과(전공) 사무실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와 성적 증명서 제출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는 학과에 비치돼 있음)
 △문의처=사범대 교학과

전공설명회

각 단과대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전공결정 신청에 앞서 학생들의 전공결정을 돕기 위해 전공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학 과	시 간	장 소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20일 오후 4시	A201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21일 오후 4시~5시	A207
이과대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반도체과학과	22일 오후 5시	A304
사과대	정치외교학과	22일 오후 3시~6시	M303
공과대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토목 · 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전자공학과	22일 오후 1시~5시	본관 중강당

회전무대

0.5의 비밀

0...원우와 학우가 함께하는 대학 생활?! 요즘 대학생들은 본의 아니게 학부생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데. 알아보니 학습관의 전산실과 휴게실, 자율세미나실 등 대학원 전용 공간을 이용하는 학부생이 많기 때문이라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공간을 학부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대학원생 X 1.5 = 대학원공간 이용자”

수능 제 6명역

0...수시모집기간동안 원서접수를 위해 동약을 찾은 입시생들은 접수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는데. 이유인즉 원서접수장인 체육관으로 안내하는 표시가 부족해 학생들에게 물어보며 찾아가야 했다고. 학교측의 무성의한 준비로 인해 몇몇 입시생들은 추운 날씨에 캠퍼스를 헤매야 했으니. 이에 본교를 찾은 한 입시생 왓, “화살표 없이 접수장 찾아가는 것도 대학수학능력”

자부심(?)

0...도서관 서고도서에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먼저 자체검열(?)이 필요하다는데.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이 신청서를 많이 제출하는 학생에게 짜증을 내며 직접 책을 찾으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신청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많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귀찮은 건 NO! 서고도서 아르바이트의 자부심이 다르다.”

쌍방통행

0...동약에 부는 뒤틀수 경보! 중앙도서관 출입문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오가는 도중 종종 별을 볼때가 있다는데. 출입문이 입구와 출구로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로 인해 서로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잦아서라고. 이는 사소한 규칙이라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생기는 사고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노란 세상을 보았니? 통증과 짜증이 가득한 ~”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방향 **논단**

시대흐름 맞춰 통일지향 법으로 거듭나야

최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남북관계법, 즉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북정책 내지 통일정책에 대한 정당 또는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우선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대해 개정 논의가 제기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협력기금법은 1990년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내용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남북공동선언과 이에 이은 남북한 사이의 교류활성화 등으로 변화된 남북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 방향이 한나라당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 국회의 감시와 감독 강화가 아니라 현재까지 발전된 남북 관계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족 구성원들에게 통일과 관련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통일의 가치

우선 남북교류협력법은 민족 구성원들에게 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남측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민주개혁과 함께 민족적 과

제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족 구성원에게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의해 통일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남측 헌법이 통일이라는 가치가 우리 민족 통합의 중심점 중의 하나라는 사실, 즉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행복과 안녕이 영원히 보장될 수 없으며 나아가 통일의 주체가 민족구성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북사업 문호개방 시급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남측 헌법에 따라 통일을 통해 자신과 자손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 통일과정에서 발현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통일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민들의 통일기본권, 통일과정에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대북사업과 대북접촉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뜻한다. 즉 대부분의 대북접촉을 국민 권리로 인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 이는 대북접촉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제를 자유로운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반자관계 인식 반영돼야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은 1992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지난해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을 최소한 정치적으로 구속하고 향후 남북 관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남과 북은 경제분야 및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남은 북을 인정하고 북은 남을 인정한 상태에서 민족구성원이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



김인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해 고려해야 할 점은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이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기본합의서와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다. 또한 북한을 기본적으로 반국가단체로 보는 이상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교류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남북 관계는 이전과 같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비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만나서 민족의 운명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한 관계에서 대북접촉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일반법으로, 국가보안법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형제도 폐지 논란

권력남용 탈피해 '인권선진국'으로 도약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인가, '시급과제'인가.

지난달 30일 여야 국회의원 154명은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이 법안에 서명해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에 따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오랫동안 끊이지 않던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달아올랐다.

폐지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사형제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이며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역설했다. 이는 제도의 부당성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말로 폐지론의 입장을 압축하는 내용이다.

고려대 김일수(법학) 교수 또한 "국가형벌권은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며 "악을 악으로 다스리는 사형제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자기모순일 뿐"이라고 폐지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신중론'과 '경계론'을 펴며 사형제를 옹호하고 나서는 이들도 적지 않다. 법무부를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은 영구격리시켜야 하고, 사형제는 범죄억제

기능도 크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용석 변호사는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기전에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라며 반대 측에 무게를 실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 역시 지난 1일 당직자 간담회에서 "살인자는 사형시키는 것이 사회의 기본인데 사이버 인본주의자, 인권주의자로 인해 기본이 무너지면 안될 것"이라며 폐지론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형제가 지난 폭력성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을 볼 때 이과 같은 폐지반대론은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등 정치 격변기를 거칠 때마다 사형집행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이는 정치적 반대파 제거를 위해 사형제가 악용되어 왔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이와 관련해 본교 한상범(법학) 교수는 "사형제는 사상을 억압하는 국가폭력으로 이승만,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통일운동세력을 저지시키기 위해 남용되어 왔다"며 폐단을 지적했다. 분단 상황이 분단이데올로기를 낳았고 그 결과 형성된 레드컴플렉



스는 사상적인 자유를 철저히 배격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그런 점이 사형제가 존속하는데 하나의 구실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조국(법학) 교수도 "사형제도는 독재와 분단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고 지금도 이용되고 있다"며 맥을 같이 했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2001 사형폐지 아시아 포럼'은 세계적인 흐름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등 86개국으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반면 폐지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109개국으로 유지국가보다 많은 수일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형제 폐지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후진국'에서 '인권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사형제 폐지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보라 기자
hviolat@dongguk.edu

사설

'결핍기' 식 중장기 인적개발 계획

지난 12일 교육부가 제시한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국가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학정원 자율화를 비롯해 △초중고 자율성 확대 △여성과 군인력 활용 증대 △평생교육 진흥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대학정원 자율화 부분이다. 이는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와 지방대 육성을 위해 대학 정원 개념을 현행 '학생수'에서 대학의 '학점 총수'로 바꿔 교육시설, 교수 확보 수준 등 대학의 교육능력 총량에 따라 대학이 정원조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에만 학생들이 몰려 지방대가 학생모집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방대가 정원 자율권을 가져도 문제 해결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비단 이러한 우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인적자원개발 계획 역시 현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근간인 기초학문 육성 방안이 여전히 배제된 채, 경쟁력 없는 학과와 교수를 몰아내겠다는 발상 등 실용주의를 내세운 정책만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의 대학위기는 정부의 교육정책실책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근본원인은 '철박한' 시장원리를 대학개혁의 기본원리로 내세워 대학운영에 도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정책들이 하나같이 파행적이었다.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학문의 보편성을 무시하고 대학을 한낱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정책들은 결코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발판이 되지 못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 역할과 중요성 인식 필요

어느덧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경주캠퍼스 학생회 선거가 후보자가 부재한 단체 및 자치기구를 제외하곤 이번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몇 년전까지 단일후보를 먼저 못했던 각 학생회 및 자치기구가 대부분 경선으로 진행돼 더욱 열띤 선거가 예상된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상대방의 잘못된 민중을 강조하는 진부한 운동방식이나, 후보자간 몇 미터 간격을 두고 큰 소리로 유세를 펼치는 등 과도한 경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일방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선거유세나 각 선관위의 이목을 피해 뇌물을 주고받는 등 대학선거의 신선함과는 거리가 먼 잔재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얼마전에 있었던 모 자치기구 후보자의 징계조치는 선관위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입증된 사례다. 이 자치기구의 선거는 끝났으며, 징계를 받았던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았다. 하지만 후보자측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징계는 관용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선거를 치러야 하는 후보자가, 더욱이 가장 민감한 선거기간 중 의혹 받은 만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최소한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했다. 당연히 민주적이고 깨끗한 선거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이므로 이번 조치는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전체선거과정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처리를 위해 설치된 합제 기관이 선관위란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거가 치러지도록 책임져야 하며 동시에 생활공동체로서 학생회 건설의 단초가 선거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부주장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김은선		하이텔 ID dgpress 나무누리 ID 동대신문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동약로

‘민심이반’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농민과 허수아비

전국 민심 기행으로 알아본 2001년 민중들의 현주소

몇달전 정부는 IMF를 졸업한다고 자화자찬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민중들을 만나 그들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또한 노동자·농민대회를 통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민중의 목소리도 들어보았다. 편집자



“정부는 뭐하는 거? 적어도 먹고 살게는 해줘야지” “그렇게, 이걸 농사져봤자 본전도 안 나오네...”

지난 13일 여의도 공원은 본격적인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만여 농민들의 분노로 뜨거웠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은 채 WTO·쌀 수입 반대와 쌀 생산비 보장 등을 외치며 한해 동안 공들여 지은 쌀더미를 불태워 버리기까지 했다.

계속 쌓여만 가는 농가부채,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기본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쌀값 안정화 정책 역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농민들은 늘어나는 농가부채를 갚기 위해 혈값이라도 쌀을 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놈들이, 쌀 좀 보내자는데 왜 반대하구 난리야?” “서로 잘자고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인지...”

농민대회를 마치고 한나라당사 앞까지 도달한 농민들은 돌을 던지며 ‘쌀 300만석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퍼주기식 지원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대북 쌀 지원을 반대하고 나선 한나라당을 성난 농민들이 곱게 지나칠 리 없었다.

정부는 쌀 생산량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한 중장기 농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계속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게 되면 통일된 이후 적정 수준의 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이 각각 쌀과 발효사를 위주로 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대비한 상호 보완적 농업정책의 수립은 우리 민족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다.

WTO 재협상이 진행되는 오는 2004년 쌀 시장 개방 재협상이 시작되면 쌀값폭락은 물론 쌀의 자급조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근시안적으로 ‘쌀값보장’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통일대비’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할 것이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대학강사를 하다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짓는다는 젊은 농사꾼 양광석(39·충청북도 충주시)씨. 그는 요즘 심각한 고민에 휩싸였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정책에 쌀농사를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것.

정부는 쌀이 부족하다며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는 등 그동안 졸곡 ‘식량안보’를 내세우면서 증산위주의 양곡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계속된 흉년 때문에 쌀 재고량이 늘어나자 최근 쌀 증산을 포기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양씨는 “예전부터 정부 정책에 맞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손해만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을 본다는 말이 있지만, 그게 요즘처럼 딱 들어맞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가을걷이도 끝났지만 농촌에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 한숨을 짓는 농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달 쌀 수매가를 낮추는 정책이 발표되자 농민들은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2004년 쌀 시장 완전 개방을 단연히 여겨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쌀값을 낮추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업장난 농가부채로 시름하다 쌀시장 개방까지 현실로 닥치자 애써 지었던 눈을 감아놓은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수확을 포기한 권영택(65·충주시)씨는 “서울에서, 그리고 북에서 밥을 굶고 사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차마 못할 짓이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며 연신 눈시울을 붉혔다.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으로 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것은 농민만이 아니다. 대전 유성시장 상인들은 “정부가 외국 농산

물 좀 그만 들여왔으면 좋겠다”며 너도나도 농산물 가격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는다. 무와 배추를 팔던 한 할머니는 “아들이 그냥 얹어버린다는 농산물을 갖고 아침부터 왔는데 지금까지 거의 팔지 못했다”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유성시장 상인들은 한결같이 요즘들어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말한다. 채소를 팔던 오숙자(58)씨는 “IMF 이후로 실업자들이 죄다 장사를 하는지 장은 더 커졌는데 장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현실은 노점상들도 예외가 아니다. 9년째 노점상을 하고 있는 박창화씨는 “예전에는 도매시장에서 배추 한 단을 5백원에 사와 천원에 팔았는데 요즘엔 6백원에 팔아도 안 팔린다”며 한숨을 내뿜는다.

특히 최근 들어 노점상은 월드컵을 앞두고 비위생적이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철거대상이 됐고, 서민들이 즐겨먹는 떡볶이와 튀김까지 판매금지 당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점상은 생계의 마지막 보루까지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 6천명 정리해고, 대우자동차 노동자 1천 750명 정리해고와 폭력 진압. 이는 오늘날 노동자들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자들에게 실업은 이미 익숙한 것이 되어 버렸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였던 주5일 근무제도 경영계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55.7%가 비정규직 상태다. 비정규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계약직 사원 6천여명과 함께 해고된 후 3백일이 넘는 지금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통신 노동자 안상훈(32)씨. 그는 “작업복까지 사비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는 커녕 요양 보상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에 분노했다.

권흥기(40·린나이 코리아)씨도 “비정규직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임금도 정규직 사원에 비해 2/3 정도에 불과하고 퇴직금도 없다”며 정부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이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권씨의 모습은 현 노동현실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권씨의 지적대로 사회에 진출할 대학생들에게도 정부의 노동정책은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대졸 이상 실업자수는 작년 8월에 비해 18.3%가 증가한 20만명이다. 특히 대기업 1/3 정도가 올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고 밝혀 청년 실업은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다.

본교 고인기(생명자원경제4)군은 “지금까지 20여 기업에 원서를 넣고 취업박람회

도 가봤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대학문을 나서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 중에는 방학도 없이 도서관에서 취업준비를 준비하는 ‘취업재수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여대 우지연(경제4)양은 “어학연수는 물론, CPA(공인회계사), 컴퓨터 등 온갖 자격증을 따지만 취업은 힘든 상황이다. 오늘도 면접을 봤지만 취업만 생각하면 눈앞이 아득할 뿐”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이처럼 농민부터 상인, 노동자, 학생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지난 보궐선거 결과만 봐도 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지금,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정책인지 심각히 반문해볼 때이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수는 396만여명으로 외환위기 전보다 무려 80만여명이 적어진 것이다.



또 한번의 외침은 끝나고

노동자·농민 현실 제자리 걸음... 정책마련 시급

‘민중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1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3만 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한 노동자들은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같은 요구사항은 1년전의 주장과 비교해 별반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다.

이번 집회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구속 사건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앞으로 단 위원장과 구속노동자 석방 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교수도 노동자’라는 가치 아래 지난 10일 출범한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교수노조는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에 교수배제되는 것을 문제삼고 계약제·연봉제 도입 중단,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등을 주장했다.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은 “앞으로 모든 노동운동과 연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존권 지키기에 나선 농민들의 움직임도 노동자 못지 않다. 지난 13일 열린 전국농민대회는 WTO 뉴라운드 출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산재해 있는 농촌의 문제를 반영하는 듯 농민들

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특히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2003년 3월까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시기와 맞물려 있어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이는 점진적인 시장 개방을 주장해 온 우리 요구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 밀려 사실상 거부당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 의장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조기 대북 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쌀 한가마 당 수매가를 올해보다 4~5% 인하시키기로 결정해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김제의 강휘복(64) 씨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수매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회를 갖고, 12월 2일에는 노동자·농민·학생이 함께 하는 ‘2001 2차 민중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한 이러한 ‘민중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시진·조슬기 기자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마포대교를 행진하고 있다.

윈도우 XP, 프로그램 속 인공지능

카오스 이론의 비선형 방정식 도입 통해 시스템 관리 융통성 높여

영화 주라기 공원 1편을 보면 수학자가 여주인공에게 카오스 이론을 설명하면서 손등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손등 위에 떨어진 물방울이 어느 손가락을 타고 내려와 떨어질 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손등의 털이 자란 방향, 떨어지는 위치에 따른 중력, 공기저항, 튀어나온 혈관의 방향, 손등에 닿았을 경우의 체온 등 수많은 변수들이 물방울이 흘러내릴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의 물방울이 같은 위치에 떨어진다면 이는 물의 장력에 의해 처음에 떨어진 물방울이 손등 위에 남겨둔 흔적을 따라 흐름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손등의 털이 자란 방향이나, 체온과 같은 변수는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변수가 제거되면서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던 상황이 규칙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작위적인 상황에서 몇 가지의 변수를 제거하면 전체적인 움직임은 규칙적인 형태를 띤다는 것이 카오스이론 중 '비선형 방정식'의 기본개념이다.

따라서 물방울이 손등 위에 계속 떨어진다고 할 경우, 이것이 흘러 내려가는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물방울이 떨어질 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변수인 것이다. 이를 비선형 방정식의 특성인 '초기조건 민감성'이라고 한다.

'윈도우 XP 리소스 관리의 융통성, 네트워크 속

도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카오스 이론을 적용하는 일'이었다고 XP제작그룹의 시스템 설계부 롭 엔더를 연구원이 언급한 내용은 실제로 위와같은 초기조건에서의 변수를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윈도우 XP에서는 위에서 말한 초기조건으로 사용자의 습관 즉, 프로그램을 여는 순서나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경우 사용자가 자주 클릭하는 메뉴 등이 놓인 위치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는 XP 선전문구의 '시스템 관리의 융통성을 통해 성능저하 없이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 한다는 내용이나, 실제 Temporary Internet Files를 열어 임시파일을 살펴보는 등의 작업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례로 윈도우 XP에서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매번 시스템 자원의 이용률이 다르다. 한글문서를 작성하면서 mp3를 듣는 경우가 잦을 경우에는 나중에 단지 한글문서 작성프로그램만을 실행한다고 하더라

양의 컴퓨터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기가 힘들겠지만 사양이 낮아질수록 이와 같은 작업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설정을 기본값으로 맞추어 놓은 상태에서 인스턴트 XP를 며칠간 사용하고 인터넷의 임시파일을 열어보면 단 한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웹페이지가 저장되어 있기도 한다. 이는 초기조건을 사용자가 잘 열어보는 프레임의 위치에 클리 가능한 페이지로 예측해 놓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카오스 이론을 적용한 기술은 그다지 특장적이거나 새로 시도되는 기술은 아니다. 과거 윈도우 95시리즈 (95, 98, 98se, Me)등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은 시도되고 또 일정부분 적용된 적이 있다. 사실 카오스 이론을 말할 때 자주 언급되는 자연의 무작위적인 패턴의 규칙성을 말하는 '프랙탈'의 개념은 IBM제작 당시의 맨델브로트 박사가 컴퓨터의 난변수를 연구하면서 만들어 낸 말이기도 하듯이 카오스 이론은 컴퓨터와 너무나도 여러모로 관련되어 있다.

다만 윈도우 XP가 1960년대에 시작되어 80년대의 전성기를 지난 카오스 이론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지난 윈도우 시리즈에서의 경험 누적이 그만큼 많은 초기조건 변수들을 제거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오 유 석
가성대학 운영조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과정



콩(大豆)

식물성 단백질의 원천인 콩은 '식물고기'라 불리며, 건강에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대신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식품이다. 콩의 학명은 'Glycine max'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콩은 품종수가 200여 종이 넘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 자라고 있다.

1년생 초본식물인 콩식물은 초장이 보통 0.3~1m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며, 덩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콩식물은 수세기 동안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을 비롯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이었었는데, 이는 채식주의를 부르짖는 불교의 전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수도승들이 콩을 원료로 해 만든 채식요리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맛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동물맛의 대용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두유의 원료가 콩이기 때문에 '중국소'라 불릴 정도로 주요한 식물인 것이다.

두유는 포화지방분이 없는 건강하고 우수한 단백질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먹고 있으며, 서구 사람들도 두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콩을 원료로 한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들은 최근 서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콩을 식용으로 하면 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성분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다. 즉, 포화지방의 함량이 적고 필수 아미노산(라이신, 트립토판, 류신, 페닐알라닌, 메티오닌, 히스티딘, 아이소류신, 트레오닌, 발린 등)이 소화되기 쉬운 모양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풍부한 비타민(비타민 A, E, K, B)과 균형있는 무기질(칼륨, 철, 칼슘, 인)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건강요소로서 아이소플라본(제니스타인, 다이제이닌)과 같은 식물성 화학(phytochemicals)을 가지고 있어 사람의 건강 증진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특이한 효과가 있다.

앞으로 콩은 서구 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사망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을 억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혈압, 암, 당뇨 및 심장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단에 반드시 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콩은 골다공증, 신장질환, 전립선질환, 위장장애, 비만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며, 폐경기 증후증, 체중유지, 운동능력 증진은 물론 노화억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콩식품은 즐겁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수명연장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콩의 용도는 밥에 섞어 먹거나, 화학공업의 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며 콩식물체나 콩깍지 및 콩 등은 가축의 사료로 널리 이용되는 등 우리 인간과 밀접하게 얽혀 있어 콩식품은 앞으로 더욱더 이용 가치가 인정되는 유용식품이다.

'동북아 신질서와 한·중·일 협력'

북한연구소(소장=강성운·북한학)는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다함관 세미나실에서 '동북아 신질서와 한·중·일 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갖는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주 제	발 표 자
동북아 평화와 한·중·일 3국간의 협력역과 갈등요인	강 성 운 한 진 섭
3국의 협력과 통일관계 3국의 협력과 한일관계 3국의 협력과 한중관계	서 문 길 구라타 히데아 김 경 일
3국의 협력과 일본의 역할 3국 관계의 평가	이 중 국 오코노기 마사오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개최

북한연구학회(회장=강성운·북한학) 주최로 2001년 동계학술회의가 오는 24일 90주년 기념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질서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1회=동북아의 신냉전과 중국의 반패권 전략, 러시아 푸틴정권의 국제정세관과 한반도 정책 △제2회=현 단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체제변화, 남북협력 활성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한 언론정보 정책의 비교 분석 △제3회=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세계전략,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고수동정

- ▲황태연(정치외교학)**
=내일(20일)부터 러시아에서 열리는 한·러 학술교류대회 예비모임에 참가.
- ▲유승룡(건축공학)**
=지난 10일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논문상 수상.
- ▲오출세(경주캠 국문학)**
=지난 10일 경주 기림사에서 '불교 문화와 경주'를 주제로 학술발표회 개최.
- ▲백승석(경주캠 중문학)**
=오는 22일까지 국제주부학술연토회 논문 발표 위해 중국 방문.
- ▲홍성원(경주캠 의학)**
=오는 24일까지 미국 Society for Neuroscience 학회에 논문 발표 및 UCLA Neurobiology Lab 방문.

민중사 연구회 제5회 정기학술발표회

자주권 확립 통한 대등관계 모색해야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된다'

본교 근현대사 연구 동아리 민중사연구회(회장=인재광·경제2)는 지난 16일 제5회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남한 사회의 대미예속성 탈피를 위한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중추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1945년 해방군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은 독립정부의 수립을 방해하고 분단을 조장하는 등 집권군의 본색을 드러냈다. 5.16, 12.12군사쿠데타와 광주민중항쟁 등 우리나라의 정치적 격변기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간섭을 했고, 이런 사실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1980년대 반미자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이에 정치적 자주성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통일이 제시되었다.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통일된 자주국가로서 한·중·일 협력체계를 결성, 미국의 통제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정치 간섭의 수단으로 군사·경제원조라는 '정책의 지렛대'를 사용했으며,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미명 하에 주둔하기 시작한

주한미군은 군사적 예속의 근간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불명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인해 국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조차 박탈당했으며, 지난 4월 개정안이 발효되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정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미군범죄에 대한 사회인식을 확립하고 주한미군철수에 운동을 대중적 시민운동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이야기되었다.

군사 외 또다른 간섭 수단이었던 경제정책은 미군정시기의 적산불하, 농지개혁, 원조에서부터 오늘날 허울좋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구속해 왔다. 특히 미국에 기생해 온 권력과 자본은 자립 경제발전의 국내 걸림돌이 되었다.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족자본, 자립경제 확립이라는 수단이 언급되었는데, 여기서 민족자본이란 노동자와 자본가 구별 없이 해외 의존성을 탈피해나가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밖에 무엇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예속되어 온 것은 우리의 문화였다. 합합, 패스트푸드, 언



슬라이드를 보며 설명중인 발표자.

어, 영화산업 등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 걸쳐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미국문화는 우리의 문화를 압도하며 문화에 담긴 민족정신까지 침식한 것이다.

이에 문화적 종속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사대주의를 탈피해 고유문화를 육성하는 방안이 주장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우방을 표방하며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반미 열풍이 불고 있는 이 때, 우리는 무작정 시류를 휩쓸러 급진적 반미를 주장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자주적 주권국가로서 교류 협력을 통한 대등한 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여섯번째 대량멸종 시기가 온다

인류영향으로 상당수 생물 멸종위기 ... 공존공생의 지혜로 극복할 때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는 유난히도 호랑이가 많이 등장한다. 아마도 예전에 호랑이가 많았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야생의 호랑이는 없는 듯하다.

예전에 우리 주변에 하던 생물들이 사라져 가는 현상 또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은 아닌 듯하다. 최근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 의하면,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중 상당수의 생물이 멸종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앞에서 예로 든 호랑이 외에도 곰, 코뿔소, 오랑우탄, 팬더 등 동물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여기에 속한다.

지구상에 생물이 출현한 약 35억년전 이래, 생물계는 새로운 종의 탄생과 멸망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생명의 탄생 이후 처음 30억년간의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캄브리아기 이후 지난 5억여 년의 생물계 흥망성쇠를 보면, 짧은 기간에 많은 생물들이 멸망한 때가 여러 번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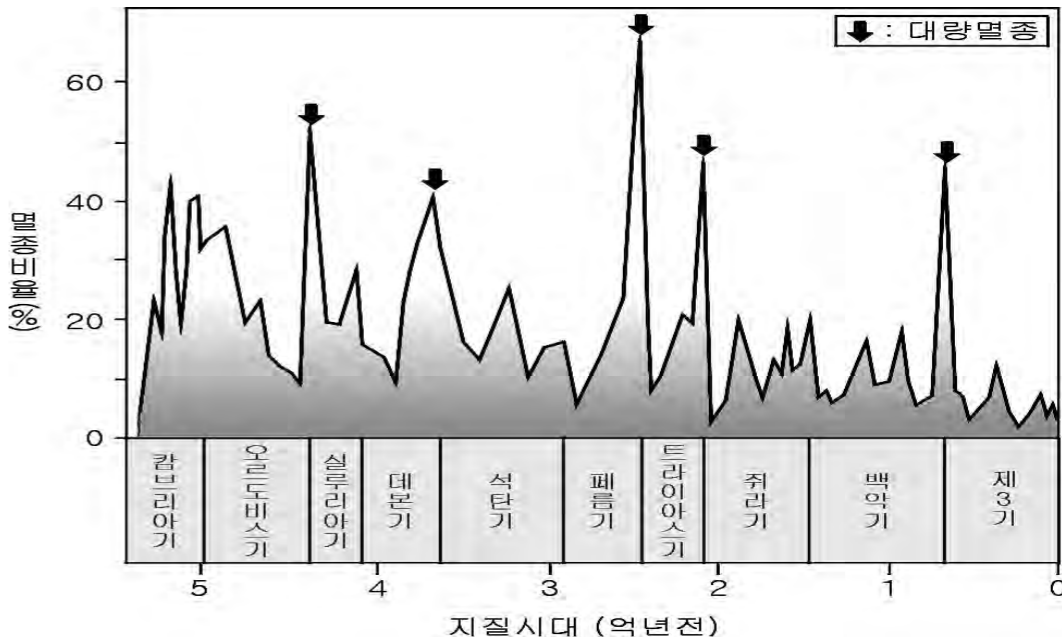
특히, 속 수준에서 45% 이상의 생물들이 사라진 때인 오르도비스기 말, 데본기 말, 페름기 말, 트라이아스기 말, 백악기 말을 5대 대량멸종이라고 한다. 오르도비스기 말에는 삼엽충, 산호 등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데본기 말에는 썩악기 사라졌다. 페름기 말에는 96%의 생물종이 사라진 엄청난 변화의 시기로 고생대의 주요 생물들이 멸종하였다. 트라이아스기에는 이매캐류가 심한 타격을 입었고, 백악기 말에는 공룡의 멸망으로 유명하다. 백

악기 말에는 이외에도 암모나이트와 많은 종류의 플랑크톤들이 함께 멸종되었다.

이와 같은 대량 멸종의 원인으로 보통 빙하기 도래에 의한 기후 한랭화(오르도비스기 말과 페름기 말), 화산활동에 의한 생태계 파괴(페름기 말과 트라이아스기 말), 운석충돌(백악기 말과 데본기 말), 초대륙 형성에 의한 대륙붕의 감소(페름기 말)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약 6천 5백만 년전 운석충돌이 있었다고 하는 백악기 말의 사건 외에는 뚜렷한 멸종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들이 많다. 어떤 학자는 하루에 30여종이 멸종한다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70종 이상이 멸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에 대략 1만종에서 2만종이 멸종한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멸종속도는 위에서 예로 든 어떤 멸종시기보다도 빠르다. 그래서 학자들은 현대를 제6의 대량멸종기라고 칭하며 경고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는 빙하기에 살고 있고, 분명 빙하기는 지구의 역사에서 비정상적 기간이므로 생물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멸종원인은 없는 것일까? 최근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활동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아메리카 대륙에 인류가 도착한 직후 많은 생물이 멸종한 것은 사람에게 의한 생물의 남획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적도지방의 열대 우림이 개간되면서 많은 동·식물들이 생활 터전을 인류에게 빼앗기고 있다. 아직 여섯 번째 멸종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인류에 의한 영향이 큰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마 우리 인류도

이 멸종의 회오리를 벗어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주변에 있는 생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지구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사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 혁 근
서울대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매체비평

영화편

달마야 놀자

“조폭영화라니요?
종교영화라 불러주세요!”



스님들과 조폭간의 한비탕 대결을 그린 영화 '달마야 놀자'.

선수 입장
무거운 눈꺼풀이 졸음을 물고 명상에 방해가 된다하여 눈꺼풀을 잘라낸 일화로 유명한 달마대사를 '백'으로 둔 무술의 일인자 청명스님, 세상사를 달관한 노스님의 막강 위력을 보여주는 스님 VS 검은 양복에 속칭 '작두기 머리', 올해만 해도 '부산 출신 준석, 동수부터 경주에 원정간 영준, 형님이라 불리는 그녀 차은진' 까지 다양한 유명인(?)을 배출한 재규와 그 일당의 조폭팀. 계속되는 '형님'들의 유명세로 사람들은 '달마야 놀자' 역시 조폭이 무대를 장악할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관록을 앞세운 스님들의 등장은 이 경기가 결코 조폭들에게 유리하지 않음을 내비친다. 재규 일당이 사찰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스님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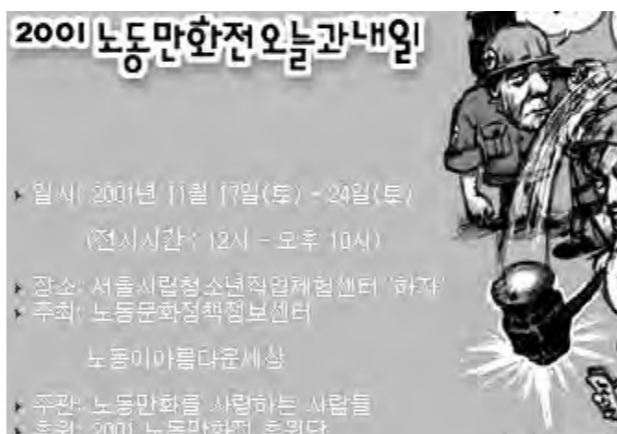
1:1 마크하면서 초반 기세잡기에 성공한 조폭팀. 재규 일당이 사찰에서 지내는 것을 허락한 노스님의 행동에 좌절한 스님팀.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경기 시작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만나는 곳이면 어디서나 좌충우돌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3천배 하기부터 고스톱치기, 물속에서 오래 견디기 등 조용한 절을 뒤쫓는 두 팀의 대결은 그리 녹록치 않다. 게다가 노스님이 제안한 '밀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시험은 설상가상이다. 결국 재규의 기지로 독을 연못에 던져 물이 철철 넘쳐서 만들었지만 말이다.
경기 결과
스님과 조폭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는 동안 대결의 판세는 스님팀 쪽으로 흘러

갔다. 서로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지만 결국엔 불교의 가르침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스님들에게 세상의 날고 긴다하는 어떤 조폭이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당할 수 있겠나. 조폭들의 실수로 범당 부처님 상의 귀가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스님들에게 "너희는 법당의 부처를 섬긴 것이다. 부처는 너희 마음 속에 있거늘..."이라며 매섭게 꾸짖어주고, 자기들을 감싸는 이유를 묻는 재규에게 "네가 밀빠진 독을 연못에 던졌듯, 나는 밀빠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다"라는 노스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처럼 조폭들이나 스님들 모두 노스님의 손바닥 안에서 서로 밀고 당긴 것일 뿐이다. 다만

대결이 스님들의 흥그라운드인 사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스님팀 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빼면 말이다.
선수 퇴장
결국 '달마야 놀자'는 우리가 그동안 흔히 보아온 조폭영화와 순차. 오히려 조폭을 설득하고 그들을 순화시키고 동시에 인간애를 나누는 스님들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종교영화'였던 것이다.
영화제목만으로는 조폭들이 스님들에게 "어이, 달마(여기서는 '부처' 혹은 '스님' 혹은 '불교'라 해두자!) 놀이볼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이 영화는 관객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난 달마란다. 나랑 놀래?"라고.
표은영 문화부장
pisik20@dongguk.edu

노동문화, 영역의 확대로 거듭나라

2001 노동문화전 거친 손으로 희망을 그린다



노보나 선전들의 한 귀퉁이에 서물지만 목소리를 담아 그려내던, 고된 노동으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보람과 희망을 주던 만화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노동문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라는 주제로 '2001년 노동문화전'이 지난 17일부터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에서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문화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표현하고 대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또 각각의 사업장 또는 개인에게 선전물이나 교육자료로 활용되어 온 것이 그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 하던 '노동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www.modongmana.net)'이라는 모임이 노동문화가 하나

의 문화영역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이기에 더욱 뜻깊다.
본 행사에 앞서 지난 9월 개최된 '사이버 노동문화전'은 노동문화를 밝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였다. 20여 명의 작가들이 내놓은 900여 점의 만화들을 시대, 작가, 주제별로 분류해 인터넷 상에서 노동문화를 쉽게 접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off-line에서 펼쳐진 '2001 노동문화전'은 크게 노동문화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평면전시, 작가들의 개성적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설치전시, 비주얼 효과를 노린 야외 전시 등으로 꾸며졌다. 뿐만 아니라 만화체험마당, 탈 마당극, 캐리커처 그려주기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 일회적인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시도를 통해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노동문화들. 이번 '2001 노동문화전'은 그 변화의 출발이 될 것이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굿놀이 마라톤 “노동자와 함께 신명나게 놀아보세”

“우리 노동자를 괴롭히는 온갖 잡귀 다 잡아보세~”
월례문화마당 세상만사가 지난 2일부터 6주간 릴레이 형식으로 '굿놀이 마라톤'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에서 열리며, '오메 좋은거' '한판 놀자' 등 각기 다른 타이틀의 노동자 이야기를 풍물, 민요 등으로 묶어 결판지게 풀어낸다.
지난 9일 두번째 바통을 이어받은 '노(숙)자 이야기'는 거리로 내쫓긴 노동자들이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의 금고를 되찾아오는 과정을 그리며, 그동안 노동자들이 착취당한 것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그들의 꿈과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권력'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 밑에 금고를 묻으며 장단에 맞춰 배우와 관

객이 함께 바닥을 밟는 퍼포먼스와 그에 이은 강강수월래, 문지기놀이 등은 억눌렀던 감정을 표출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자유롭게 무대로 올라가 배우가 되기도 하고, 배우들 역시 객석으로 내려와 함께 춤사위를 즐기기도 했다. 특히 세계 7~8개국 노동자들의 모임 '남반구 노동자 회의'와 '전국여성농민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객석을 채워 공감대를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헛기침에 우리들은 폐렴 앓고...'라는 가사의 노래가 공연장에서 울려 퍼질 때는 관객들 모두 눈시울을 적시며 숙연해 지기도 했다.
노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구

성진 가락에 몸을 들쭉이며 '노동문제'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 '굿놀이 마라톤'. 어쩌면 풍물과 어울리는 민요 한 구절에 담은 노동자 이야기가 집회현장에서 보다 좀 더 많은 이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내지 않았을까.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다큐멘터리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꾼다' 보았노라, 들었노라, 깨달았노라!



'노동자도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
21세기 노동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노동현장에서 희망이 아니라

절망만 만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꾼다'에 담긴 그들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일을 하다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일반적인 근로조건 저하와 계약 변경에 따라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만다.
비정규직 여성에 관한 짧은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는 인권의 시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생생한 모습이 드러난 작품이다. 카메라는 골짜기 경계로 보조원으로 살아가는 김씨의 노동현장과 대학 식당 조리사 어머니들과 환경 미화원들이 겪는 현실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비정규직 여성 권리 찾기 이철순 운동본부장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채 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려고 했다"고 진한다.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투쟁을 담은 영화는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부당한 해고와 처벌이 없는 세상에서 최저 임금을 보장받길 바라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는 분명 진실한 것이다.
오는 20일부터 6일간 대학로 일대에서는 세계 각국의 노동영화가 상영된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노동운동을 영화로 제작하는 이러한 시도가 낯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영화를 보면서 그들의 희망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지 적극적인 방안임을 틀림없을 것이다.
이지현 기자
easy01@mail.dongguk.ac.kr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김승욱의 '서울 1964년 겨울'에 나오는 이 대사는 꿈틀거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꿈틀거림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 그것은 만일버스 안에서 만난 한 아가씨의 오르내리락 거리는 아랫배일 수도 있고, 우리사회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학생들의 집회일 수도 있다. 이렇듯 작가는 작품 속에서 '꿈틀거림'을 살아있는 것에 대한 조건 반사, 그리고 변화와 개혁의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있다.

꿈틀대는 노동문화

과거의 노동문화라 하면 붉은색 띠를 이마에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와 바다과 담벼락에 휘갈겨 쓴 '노동생존권 쟁취'라는 글귀, 그리고 민중가요에 따른 몸짓이 전부였다. 당시 노동문화는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라는 개념보다 집회 현장에서 단순히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조적 역할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문화계가 꿈틀대고 있다. 바로 살아있는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문제의 노동자 이야기를 예전의 거친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해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래와 몸짓, 집체극으로 대변되던 노동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만화, 연극, 풍물, 민담 형식 등 그야말로 '골라먹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갈국수와 박카스' '폐지 다이어트' 등 노동자를 농락하는 사회의 온갖 부정부패를 풍자하는 노래를 부르는 문화노동자 연영석 씨나 오는 20일에 막을 올려 올해로 다섯 번째 돌을 맞이하는 '노동영화제'까지 대중매

체를 적극 활용하여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노동자 미술전'은 3개국의 노동자들이 직접 작업한 미술작품을 전시해 노동문제의 범위를 세계로 확장, 노동문화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일상 속으로

만저 이러한 노동문화계의 꿈틀거림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본래 문화란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노동문화 역시 집회현장에서만 잠시잠깐 행해졌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 속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문제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서도 노동문화가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노동문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과 기름도 섞인다?

지난해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체의 단원들이 노조를 결성했을 때 '예술단체의 노조결성'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다. 이는 예술과 노동은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을 여실히 보여준 일례라 할 수 있다.
'서울 2001년 겨울' 노동문화계의 꿈틀대는 변화와 더불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자세이다. '꿈틀거림'과 '꿈틀거림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메아리

레이덤

▲2·0으로 앞선 9회 말.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았다.
그러나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어느새 공은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야' 하는 탄식의 소리는 멀리 태평양 너머에서도 들려왔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김병현 선수의 보직은 소량수라 불리는 마무리 투수.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급한 불을 끄고 내

려오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비록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팀은 우승했지만 마무리 실책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됐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선을 앞두고 당 총재직을 내놓았지만, 김경여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김대통령이 10.25 재·보궐선거 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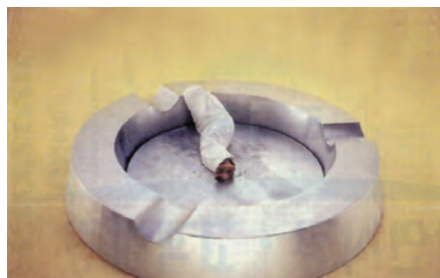
배 이후 당 안팎에서 화살이 돌아오자 결국 '자의한 타의반'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4년전 김대중 정부는 '50년만의 역사적 정권교체'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 등의 찬사를 들으며 출발했다. 비록 소수 여당으로 출발했지만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달리 개혁다운 개혁과 진보적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과연 민주와 진보를 기다려온 대중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해 왔는지 묻고 싶다.
결국 지금의 현실은 그가 책임져야 할 몫인 것이다.
▲조선장 상태에서 마운드에 서는 마무리 투수들에게는 타자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툼한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기를 1년여 넘겨놓은 DJ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마무리이다. 총재직을 조지

사퇴한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국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최근 재벌 개혁을 비롯한 경제문제와 다시 얼어붙은 남북관계 등은 분명 대통령이 매듭지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위기 상황을 책임지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마무리 투수의 특권이다.
김현중 대학부장
dizzy20@dongguk.edu

소나기

비흡연자 vs. 흡연자



△피고 싶을 피는거지.
 그렇지않 피해는 주변 안되고~
 △흡연은 행복 건강 감소시키는 무기.
 △다 좋은데 옷이랑 머리에 냄새 배어서 싫어요.
 △건물 곳곳에 흡연실을 마련하라.
 △비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적발하여 엄벌에 처하시오!
 △왔다갔다하며 남의 담배연기 먹기 지겹다 지겨워.
 △소년이 담배를 알았을 때 비로소 남자가 되었다. 소녀가 담배를 알았을 때 비로소 남자를 알았다.
 △담배도 문화다. 우리의 인권을 침해 마라!
 △밖에서 피든지, 환풍기를 달던지...
 △저는 담배 좋아해요. 담배는 기호품.
 △피울 땐 실외에서 피우고 공조는 휴지통에 버팁시다.
 △방독면을 지급하라!
 △환풍기나 만들어라!
 △담배 피면 입에서 발코랑내 납니다.
 △흡연자들이 이만큼 양보했으면 됐지.
 우리가 죄인이나? 눈치보며 담배피게.
 △여성 흡연자 대(大)찬성!!
 남잔 되는데 여잔 왜 안돼요? 불공평하다.
 △담배 피지마요. 일찍 죽는데요.
 △여학생 흡연실 만들어 주세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다.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예의만 지킨다면야...
 △나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피운다.
 △담배값 내리기 대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합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뭐지? 간접흡연으로 수명 줄어드는 비흡연자를 흡연자들이 살려줄 것인가?
 △캠퍼스 내 금연구역 도입해서 흡연구역 밖에서 담배 피면 벌금 물리자.
 △세계 담배 소비국 1위다.
 비흡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라.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지 담배 피는 곳이 아니다.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지 마시다.
 △캠퍼스 전지역 금연구역 설치하라.
 △담배 피면 독극물 마시는 것과 같다.

선거 계기로 학교일에 관심 가지길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계속 되는 가운데 아침·저녁으로 언 손을 비비며 교내에서 열심히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이 유난히 안쓰러워 보이는 것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서서 구호를 외쳐서만이 아니라 '오늘도 무관심한 학생들의 시선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동정심부터 먼저 들어서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도 학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 이제는 학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들을 보고 별난 사람,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통칭할 정도로 학생회 일이나 투쟁현장은 강 건너 일이 되었다. 투쟁대열의 선두에 서서 구호를 외치던 모습이 멋있던 시대는 정말 끝난 것일까? 대학이라는 울타리는 좀 더 깨어있고 진취적이며 도전적인 공간이라 불러졌다.

벤처특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동국 벤처주간'에는 벤처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치러졌다. 그 중 3일간 열린 벤처특강은 나에게 벤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2시간동안 성의껏 설명해주는 강사들이 살아 남는다는 프로정신은 이 특강을 듣지 않은 모든 동대인들 또한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런 벤처행사를 해마다 꾸준히 열여 내년에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학생과 함께 하는 벤처'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동대인 중에서 성공한 벤처가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이선영 (인문대 일문3)

진심어린 봉사활동으로 사랑 실천하기

낙엽이 떨어지고 추위가 찾아올 때면 길거리에서는 어김없이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누구나 한번쯤은 이 종소리 울림에 시선을 돌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봉사동아리 '로타랙트'의 일원이지만 이곳에 몸담기 전까지는 봉사활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봉사활동이라고는 고등학교 시절에 한 한철이 전부였다.
 그러나 대학에 와서 작게나마 스스로 봉사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물론 매주 할머니들이 계시는 자이원 방문과 가끔 가는 농촌일손 돕기가 봉사활동의 전부이지만 마음이 담긴 봉사활동은 내게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 동아리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주위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심어린 봉사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주위의 시선도 분명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득 작년 이맘때쯤 찾아간 민재 양로원 할머니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때 눈

그러나 적성에 맞는 과 선택이라는 미명 하에 실시된 학부제 모집, 계열별 모집으로 인해 학생들간의 결속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로써 학내에서 일어나는 그릇된 일에 무감각해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대학사회가 왜 이토록 황폐화되어 가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낙후된 복지시설이나 등록금 인상에 관해 불만의 목소리만 높이고 우리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는 데는 인색하기만 하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행동인데도 말이다. 분명한 것은 많은 입후보자의 꿈과 패기가 꺾이는 것. 그들의 운일지는 모르지만 선거가 학생들의 투표를 미달로 반반이 무산되고 재선거가 열리던 작년과 같은 일은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에 생각을 거듭한 후 결정을 내렸으면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한다. 중도포기는 실패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확실한 자신감과 최고만이 살아 남는다는 프로정신은 이 특강을 듣지 않은 모든 동대인들 또한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런 벤처행사를 해마다 꾸준히 열여 내년에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학생과 함께 하는 벤처'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동대인 중에서 성공한 벤처가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이선영 (인문대 일문3)

의미있는 대학생학

많은 학생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학 시기를 무의미하게 흘러 보내고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듯이, 대학 시절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경험은 귀중한 제1의 자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것을 보고 느껴야 하며 무엇보다 매사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자기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꿈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지나야 할 마음가짐이다.
 후회란 것은 항상 어리석은 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후회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학생들은 가슴 속에 숨어둔 반짝이는 꿈을 위해 하루 하루를 뜻 깊고 보람차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학을 한 스펀의 용기와 또 다른 한 스펀의 신중함으로 담은 맛있는 차와 같이 아름답게 담아내길 바래본다.

김명희 (인문대1)

영건이 영에게

남자는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의지로 시작한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학생회장 결의자에서 후보자로, 선거운동에서 당선까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누구보다 영이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참도 제대로 못 자고, 잠에도 못 들어가고, 운동원들 챙기며 강의실 선전전 들어가느라 잠도 설침이 없었는 거 잘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믿는 모습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격려해주는 영. 이제는 영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천 2백명의 학생들을, 사과대를 이끌고 가서야 마니까요. 선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를 반영하고 앞으로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선거라고 말이지요. 투표가 끝났다고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무척 반성됩니다.
 새로운 시작인 만큼, 이전 사과의 대포처럼 일천 이백의 얼굴인 만큼 더욱 임내고 노력하는 영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영의 그런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힘내세요!

이성훈 (공과대1)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원인 분석하는 보도 기대

학생회 선거에 맞춘 지나호 사설은 시기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의 모습을 다루기보다 학생선거에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태도를 꼬집은 점이 돋보였다.
 학생회 선거가 매년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만의 열정과 노력으로 치러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관철되길 바라지만,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4년만의 경선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기대했지만, 역시 과반수를 갖 넘기는 저조한 투표율로 끝났다. 앞으로는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기사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저조한 투표율에 대해 더욱 분석적이고 실제적인 보도를 기대한다.
 이정훈 (영문2)



(제1331호 11월 12일자)

수능문제 공감한 기사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난이도 조절에 또 한번 실패했다는 보도를 했다. 많은 학생들은 좌절했고 얼얼한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다. 12년간 갖고 닦은 실력을 난이도 조절 실패로 우리의 고3들은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삼국지의 경우를 통해 수능을 예기한 메아리는 국민들이 교육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해 주는 것 같아 좋았다. 앞으로 이런 글을 좀 더 많이 실어 우리의 입장을 숙시원하게 대변해 주길 바란다.
 황주철 (불문대1)

나의 보물 앨범 1호

사람의 목소리에는 각기 다른 색이 있다. 두터운 브라운, 따뜻한 노랑, 거친 그레이. 그리고 울드 팝 컴플레이션 앨범에서 우연히 마주친 'Almaz'의 주인공 랜디 크로포드의 목소리는 찬 यू리처럼 투명한 색이었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랜디의 목소리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고음에서 맑고 부드럽게 퍼지지만 그 여운에는 상처의 깊이가 간직되어 있는 소리, 애절한 피아노로 시작되는 'Almaz' 한 곡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사로잡혀 버린 나는 다행히 워너 뮤직 코리아에서 'The very best of randy crawford'라는 타이틀의 앨범을 구할 수 있었다.
 'Love begins with one hello' 하는 가사가 반복되면서 흐스려 있게 다가오는 'One hello', 'Imagine' 과 'Knockin' on heaven's door'의 근사한 재즈풍 리메이크를 비롯해 최소의 반주 위에 깔리는 담담한 랜디의 목소리가 모든 것은 변한다고 되었다. 앨범을 마감하는 'Everything must change' 까지 가장 투명하고 아름다운 곡인 'Almaz'를 제외하고도 앨범 전체를 보셔 같은 곡으로 채워져 있어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나의 보물 앨범 1호이다.
 변기석 (문과대1)

최소한의 예절 지키자

대학생이 되어 수업시간의 예절을 운운하는 것이 어찌하면 새삼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최고인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예절을 망각하고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계속해서 울려대는 핸드폰 벨 소리는 칠판에 적힌 '수업시간에는 배빠나 핸드폰을 진동으로'라는 표어를 무색하게 만든다. 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지키지 않는 것은 무슨 심보란 말인가. 더욱이 교수의 교육방식에 불평만 늘어놓으며 수업을 따르지 않는 행동은 대학생으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출석을 부를 때 대답만 하고 나가버리는 행동, 교수가 지나가듯 인사조차 하지 않는 행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착되어 왔다. 과연 이런 행동이 언제까지고 계속되어야 할까?
 요즘 들어 가치관이 변하면서 개인주의와 성향은 짙어지고 있으며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이 늘어만 가는 현실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애칭이 부끄러워진다.
 앞으로는 수업시간 예의를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는 동국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현미 (인문대1)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upress
 나무누리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알기가 된 걸 축하하며. -수
 △두연이와 재원이! 200일 축하해. -현욱
 △진이야! 생일 축하한다. -우물
 △16일 탈의 떨어진 똥 정지훈 응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달빛이 일동
 △음샘 정지공연 축하. -달빛
 △미영아 생일 축하해. -O.K
 △주진완·양희창 당사자님들 정말 축하드려요. -불대 깜짝이 우영·주영
 △일요일날 결혼하는 내친구 미하야 축하한다. -정초딩60
 수고하셨습니다
 △생자대 선거운동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신욱



은방글

축하합니다
 △두연아~ 총여 선거 운동하느라 수고 많았어! -현욱
 △34대 지리교육과 학생회건선을 위한 선운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지교사랑
 △중분과! 진용제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진
 △단풍연 여러분 정지공연 뛰느라 너무 수고 하셨어요. -진
 열심히합니다
 △졸업영화제를 준비하는 영화과 파이팅! △호우회 여러분, 창립제 출승회 열심히 준비합니다. -배
 △문화회 시극 열심히 하십시오. -탈
 △한희대 95학번 여러분, 남은 60일 최선을 다해 국시 대박맞자. -수석
 그리고...
 △불교대 조우영! 사랑해! 이젠 내 마음 좀 알아줘. -H.M
 △연옥아. 끝까지 잘 해보자. -명이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고.감.실 예뻐 17기를, TEST 통과하고 방송요원 된 거 축하해! -15기 선배가
 △관호랑 영미의 150일을 축하합니다. -남경
 △헤미야, 소연아 20번째 생일 넘남 축하해. -뽕뽕이가
 △초츨야 대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축하한다. -세훈94
 △현조, 남기, 인호, 민호, 문찬이 R.O.T.C 합격 추가추가!! -이뿌니 JeonO
 △유정이 생일 축하하구 사랑해!! -주주총회일동 (란, 하나, 헤미, 헤미)
 △문수야! R.O.T.C 합격 축하한다. -동화
 △장혁수 선배 학군단 합격 축하해요.
 △11월 20일 배진수 생일 축하해. -회장
 △불동과 옥자야 헤미양!! 100일 축하해.
 △11월 20일 불교학과 2학년 주영이 생일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해. -불꽃남자
 수고하셨습니다
 △똥을 든 아기부처 "2회 전시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뽕.애기
 △MBA 학술제 잘 끝내서 너무 좋아요!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MBA 화이팅
 △국사학과 "뽕터" 준비한다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남경
 열심히합니다
 △광희야! CPA100일 남았다. 열심히 해라!
 △경원이 오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빠를 사모하는 한 여자가
 그리고...
 △성국 오빠!! 군대 잘 갔다 오세요. -이쁜 세 여인들이
 △풍우형, 빠른 패유 기원할게요. -WE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부대찌개(1500) 닭도리탕(1500) 피자돈까스(1500)
화	갈비탕(1500) 참치볶음밥(1300) 돈육계란장조림백반(1500)
수	쇠고기국밥(1500) 제육덮밥(1500) 튀김우동(1500)
목	닭가죽(1500) 짜장밥(1300) 떡볶고기(1500)
금	비엔나볶음밥(1500) 오므라이스(1500) 오징어소면무침(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소고기당면탕(1500) 산채볶음밥(1300) 비엔나볶음(1300) 시골우거지탕(3000)
화	짬뽕국밥(1500) 참치김치덮밥(1500) 치킨샐러드(1500) 동대찌개(3000)
수	소고기피망볶음(1500) 잡채밥(1500) 두부김치(1500) 유부잡채전골(3000)
목	오징어찌개(1300) 리조육(1500) 육개장(1500) 함박스테이크(3200)
금	아욱우동(1500) 순살돈까스(1500) 게맛살볶음밥(1300) 해물짬뽕국(3000)

(단위:원)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쇠고기무국(1300) 김치볶음덮밥(1600) 쇠고기볶음밥(1700) 생선까스(1800)
화	탕파국(1300) 돈까스(1500) 닭갈비볶음밥(1700) 불나눔(2000)
수	쇠고기영양탕(1300) 오므라이스(1600) 짜장덮밥(1700) 튀수덮밥(1800)
목	콩부지찌개(1300) 미파두부덮밥(1500) 불고기덮밥(1700) 스페니쉬족찜(2000)
금	콩나물국(1300) 참치이채비빔밥(1500) 오징어제육볶음(1600) 해물덮밥(1800)

(단위:원)

경주캠 원효관 교직원 식당 차림표

월	비엔나계찜조리·홍합탕(2500) 쇠고기덮밥(3500)
화	돈육두루치기·해물탕(2500) 돈까스(3000)
수	고등어조림·된장찌개(2500) 갈비탕(3500)
목	편육/새우젓·건새우이육국(2500) 김밥+칼국수(2500)
금	닭조림·쇠고기국(2500) 비빔밥(2500)

(단위:원)